

# 디지털도서관과 사서의 역할변화

순천대학교도서관

김 환 빈

##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4. 시설 및 장비           |
| II. 디지털 도서관이란 | III.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 변화 |
| 1. 개념         | 1. 도서관의 역할 변화        |
| 2. 기능         | 2. 사서의 역할 변화         |
| 3. 필요성        | IV. 맺는 말             |

##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인 도서관의 개념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관 제공하는 장소, 이용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찾아가는 장소, 또는 자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학습하는 학습장소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와 각종 통신 기술,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로 계속 쏟아지는 수많은 자료를 수용할 공간과, 인력의 부족, 자료가격의 상승등으로 빚어지는 예산의 정체 및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아무리 규모가 크고 예산이 풍부한 그 어떤 도서관일지라도 지구상에서 발간 되는 모든 자료를 보유하여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제때에 얻지 못하는 불만이 증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로는 변화해 가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용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도서관과 우리의 사서들도 변화해 가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단순한 도서관 업무 자동화를 위한 컴퓨터의 활용을 넘어선 정보매체의 전자화, 도서관 업무의 전자화, 서비스의 전자화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도 자국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힘의 우열이 평가되기 때문에 선진국가들은 자국의 정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의 정보력이란 국가발전에 필요한 모든 학문 분야의 정보를 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력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의 도서관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을 구축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래의 도서관은 이용자가 찾는 정보를 소유한 도서관과 이용자를 연결시켜 원하는 정보를 최단시간내에 획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의 개념과 기능,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디지털도서관 시대에 우리 도서관과 사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디지털 도서관이란?

### 1. 개념

도서관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모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자 도서관(electronic library),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가상현실도서관(virtual reality library), 벽 없는 도서관(library without wall), 멀티미디어도서관(multimedia library)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전체적인 개념들이 유사하므로 모두 동의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각기 자기의 관심 영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FOX(1995)는 전자 도서관을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측면과, 컴퓨터 전문가 측면, 일반인들이 보는 3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측면에서는 전통적 도서관의 자동화, 새로운 형태의 정보원, 정보자원 공유를 포함한 새로운 수서 방식, 새로운 정보축적 및 보존방법, 새로운 분류와 목록, 새로운 형식의 이용자 봉사, 전자시스템과 네트워크의 활발한 이용 등의 새로운 도서관 기능을 생각하는 반면, 둘째로 컴퓨터 전문가 측면에서는 분산 텍스트베이스 정보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으로 생각하며, 최근 WWW(World Wide Web)나 Hypertext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상호 교류하는 정보공간으로 생각하고, 셋째로 일반인들은 단순히 전통적인 도서관의 전산화 정도로 받아 들이고 있다.

Raitt(1987)는 디지털 도서관을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적절히 적용하여 정보를 수집, 축적, 검색 및 배포하고, 도서관의 기본시스템의 통제를 위해 새로운 정보 기술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정의하였고, Rowley(1988)는 디지털도서관을 인쇄형태의 도서, 정기간행물, 포스터와 보고서에서부터 마이크로PC, 슬라이드, 필름, 비디오, 콤팩트오디디스크, 오디오테이프, 광학디스크, 마그네틱테이프, 플로피디스크에 이르는 다양한 매체에 저장된 정보, 문헌, 시청각 자료, 그리고 그래픽 자료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즉 광학매체를 통해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이외에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전자화 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 자체를 전자문헌으로서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세 학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포괄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이외에 오디오, 비디오 등의 다양한 유형의 멀티미디어를 전자미디어에 축적하는 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강조하여 이들 데이터를 원격지에 송수신하는 통신기술이 결합되어 구성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유형의 정보원들이 상호 연결된 정보의 분산공간에서 논리적인 구조로서 디지털화되어 있으므로 이용자는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며 반드시 도서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개념이 필요하지 않다. '정보자원의 디지털 형태', '네트워크 기반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유통', 'VOD(Video on demand)'라는 의미에서 미국과 국제학술회의에서도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도서관이 가지고 있던 정

보자료의 수집, 조직화, 보존, 제공 등의 기능이 전자화된 도서관으로서 관련된 주변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강조한다. 이 도서관은 정보자료가 전자화된 정도에 따라서 통합된 전자화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으로 볼 수 있으며 '도서관의 전자화', '자료의 전자화', 전자채널에 의한 정보의 연결 및 유통이라고 하는 의미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가상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도서관과 같은 의미이며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에 의한 도서관이라는 이용자의 인식에서 선택되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누구나 어디에서 세계의 모든 정보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며 시각과 공간 인터페이스를 강조한 용어로 가상도서관은 물리적 건물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나 장서의 측면에서 기존의 도서관과 다를게 없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을 관리하거나 정보를 서비스하는 사서의 입장에서는 디지털도서관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위에서 기술한 도서관 기능의 전자화, 정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접근 등이 용어의 개념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2. 기 능

디지털 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을 대신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의 확장과 다양화를 의미한다. 도서관이 소장, 제공하는 정보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인쇄물 형태에서 다양한 유형의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정보로 그 범위가 광범위해졌고 이들 정보를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공유하게 되므로써 이용자 서비스 또한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디지털도서관이 추구하는 기본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이 달라진 것이다.

Dowlin(1984)은 디지털 도서관을 도서관 기능의 전자화된 도서관, 전자화된 정보의 저장고라고 정의하면서 전자도서관의 모형을 크게 자원(resources), 정보(information),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3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원기능은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 수행해 오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기

능으로 도서관은 가치있는 중요한 학술지, 도서 등의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이들 자료를 비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예견할 수 없으나, 이용자의 요구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바탕으로 이러한 자원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정보기능으로써, 전자형식으로 접근하여 전달되는 데이터, 정보, 지식의 제공을 말한다. 기존의 도서관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의 도서관은 전자적인 형태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디지털 정보를 가공, 처리, 제공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전자정보원에는 전자도서, 전자잡지, 전자신문, 온라인 도서관 목록, 그 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CD-ROM 등이 있다. 디지털 정보의 생산에는 기존자료의 변환과 함께 전자출판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이용자 개개인이 디지털 도서관의 한 부분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기능에는 디렉토리 기능, 연결기능, 정보 전문가의 중개기능이 포함되며 전자우편이나 게시판의 이용에서부터 온라인 목록을 이용한 정보검색, 네트워크를 이용한 최신정보 서비스와 문헌전달 서비스, 외부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자메일이나 전자게시판과 같은 네트워크의 활용은 정보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전자메일을 이용한 자료신청이나 질의 응답 등은 사서와 이용자간을 더욱더 가깝게 할 수 있으며 온라인 목록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요청 받아봄으로써 도서관 방문을 불필요하게 하기도 할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 환경에서의 이용자 서비스는 사서로부터 통신매체인 컴퓨터로 전환되므로 보다 효과적인 정보검색을 위해서는 동일한 검색언어와 절차 구조화된 탐색언어, 이용자의 탐색전략 분석과 탐색전략 극대화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 즉 방대한 정보 속에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들을 볼 때 결국 디지털도서관의 기능은 그래픽, 소리, 이미지, 텍스트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이들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과 네

트위크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은 앞으로의 시대가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기능들이 전통적인 도서관이 갖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디지털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도서관 기능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경험과 다양한 기술을 응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만족시켜줄 수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 3. 필요성

지금 세계 각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아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4년부터 시작하여 오는 2015년까지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송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추진중에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 전국 곳곳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통신망을 통해 도서관, 학교, 병원, 가정 등을 연결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디지털 도서관은 이러한 정보고속도로의 중요한 응용분야이다. 21세기 국가의 경쟁력은 보다 빠르고 많은 정보를 통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력은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디지털도서관을 통해서 국가의 정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정보산업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리라 본다.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는

- ① 보다 신속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자료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 ② 이용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며
- ③ 모든 자료를 공유화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제화에 동참할 수 있다.
- ④ 방대한 정보 수집으로 국가정책 및 기업의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 ⑤ 날로 발전하는 선진 각국의 과학 기술 연구 동향 및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중복연구를 피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
- ⑥ 아울러 우리 나라의 관련 자료를 해외 이용자들이 활용함으로써 정보제공자로서 정보공유에 일조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 디지털 도서관 구축에는 국가적인 지원체제는 물론 장·단기적으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 4. 시설 및 장비

기존의 도서관은 업무의 흐름이 단순하여 물리적인 공간구성이 비교적 용이하여 현재 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이를 구현해 주는 건물구조를 갖고 있지만, 미래의 도서관은 날로 변화 발전하는 흐름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 계획하는데 완전한 새로운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디지털도서관 건축 계획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소장하고 있는 책자 형태의 정보원들이 디지털도서관 구축 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건축과정에 도서관에서도 참여하여, 도서관 실무자와 건축가가 함께 협력해서 미래의 부족함이 적은 건물을 구축해야 되리라 본다. 아울러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목표와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하고, 이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현재 소장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시키고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원격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자료를 수집, 축적, 검색, 배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많은 자료들을 수집, 이용 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각종 서지나 신문, 정기간행물 중 전자매체로 제작되고 있는 것은 인쇄매체의 자료수집보다는 전자

매체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최신의 정보들은 해외의 전문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서관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전 장서를 단계적으로 디지털 화상자료화 해서 관내 이용자는 LAN에 접속된 멀티미디어 터미널에서 정보를 이용하고 국내·외의 원거리 이용자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통해 원하는 자료의 서지정보 및 본문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장비로서는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각 도서관이 구현하고자 하는 성격에 따라 적절한 하드웨어를 선정,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는 자체 개발할 수도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상업용으로 제작된 디지털도서관용 패키지를 일괄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던 간에 데이터의 전자화, 자료의 저장, 관리, 검색, 전송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기능 모두 네트워크 환경의 클라이언트/서버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III.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 변화

#### 1. 도서관의 역할 변화

도서관이 정보센터로서의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장소의 개념이 아닌 정보의 접근점으로 변해야 할 것이며 직면하고 있는 정보사회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도서관의 목표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한다. 즉 21세기의 도서관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정보에 접근시킬 수 있는 체제로 변해야 한다. 현재는 PC통신, 인터넷, 인공위성을 통한 학술교류가 이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언제까지 책만 끼고 있는 도서관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다가올 21세기의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보다는 자료에의 전자적 접근과 정보의 전자적 전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도서관에서 중요시하



지 않았던 정보접근 및 정보전달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많이 등장하여야 한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는 국가의 경쟁력 향상의 핵심정보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서관 정보의 디지털화 계획을 준비하여야만 정보의 세계화를 통해 무한 경쟁시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워크스테이션에서 국내의 도서관 자료뿐만 아니라 전세계 도서관의 자료 및 상업적인 정보원까지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의 전문을 전자적인 정보전달에 의해 온라인으로 즉시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센터로서의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올바른 목표는 도서관 본래의 장서관리와 서비스를 보충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 외에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보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도서관은 새로운 정보과학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고 변화하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극 수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도서관은 정보사회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사회 요구에 맞는 새로운 도서관의 목표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도서관은 현시대의 다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매체가 필요한 것이다. 논문, 연속간행물, 보고서 및 기타 정보가 책의 양보다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 관리는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미래의 도서관은 많은 책과 논문, 잡지 기사들을 전자식으로 저장해야만 사용자들은 스크린이나 통신을 이용하여 찾아보게 될 것이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은 인쇄해서 보게되며 여기에는 어떠한 카드목록도 필요 없을 것이며 그 대신에 컴퓨터나 단말기, 스크린으로 빠르게 항목을 찾도록 색인을 보유하도록 해야된다.

전자식 도서관은 적절한 통신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다. 빠른 인쇄기계가 장치된 사무실에서나, 스크린으로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가정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도서관의 규모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도서관 또는 자료실에서 정보관리실, 기술정보실, 또는 정보센터로 바꾸는 경향이 정보화시대의 물결을 타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정보처리 능력은 아직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도서관과 조직들은 비교적 소규모로서 정보의 수집, 관리, 봉사에 치중했다. 하지만 정보센터는 해당분야의 이러한 소규모 조직들을 연계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오늘날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관리 기능의 특징중 연구결과들이 계속 축적되는 「축적성」, 그 축적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는 「창출성」, 여기서 창출된 정보가 가치가 소멸되기 전에 신속히 전파되어야 하는 「신속전파성」 및 「공유 및 활용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조직과 네트워크 관리조직을 강화하여야 한다. 결국 정보센터는 이러한 조직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함으로써 그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센터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는 어떤 자료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예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얻게 될 가치와 원 정보의 가격, 정보의 수집, 관리, 가공비용 및 유통시설 유지비용 등과 비교하였을 때 유리하지 않다면 반드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장차 예상되는 디지털 정보처리에 대한 수용준비이다. 미래의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결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입력한 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세계로 순식간에 전파할 것이다. 이러한 편리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정보는 책자형 매체를 급속히 대체하여 갈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때 도서관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데이터뱅크와 전자서비스를 갖춘 정보센터가 되어야 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항상 개선되고 발전과 성장하는 조직체로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사서의 역할 변화

다량의 정보매체의 급증은 이용자들의 머리를 혼란하게 하고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을 초래하면서 적합정보 이용률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그대신 정보검색, 문헌소재, 정보검색기술이 전자공학적으로 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은 정보 입수에 대한 편의주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따라서 사서들은 잠재적 정보요구를 예상하고 정보이용의 필요를 조정하는 정보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사서가 정보의 관리 및 제공(열람, 대출) 업무에 중점을 둔 도서관 업무를 수행했다면 디지털 도서관 시대의 사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위한 정보처리에 심혈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로 변모하면서 각종 정보는 가공되어 상품화 현상을 초래하였고 도서관의 많은 부분들이 컴퓨터로 대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이 실현되면 사서의 존재여부를 거론할지도 모르나 미래를 바라보며 설계하는 사서들이 양적으로 감소할지라도 그 역할은 오히려 전문화되어 정보전문가 또는 정보검색가로서의 고부가가치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도서관이라는 것은 정보의 소유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봤을때 이 개념과 가장 부합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서들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속에 있는 사이트를 개발하고 이것을 이용자에게 알리며 자관의 자료를 전세계적으로 내보내야 하겠다. 또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자메일이나 전자회의를 통해 신속한 참고봉사나 업무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정보를 습득하는데 앞장서야 겠으며 know-how의 시대가 아닌 know-where의 시대인 이때에 필요한 역할이 정보중개자로서 사서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정보의 양과 접근 가능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 정보를 평가하고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증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미래의 사서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의 진보로 학술정보의 환경이 계속 변화해 가므로 정보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변화된 환경을 소개하고 이용 지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교육으로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 새로운 정보처리 도구, 쏟아져 나오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위한 각종 정보획득 방법들에 대한 재교육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서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컴퓨터 기술 관련자들과 협력하여 이용자가 방대한 전세계의 정보를 최신의 손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해 줄 때 도서관은 미래가 기대하고 요청하는 기능을 올바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서지 전문가가 아닌 정보관리자로서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효율적으로 검색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사서가 될 것이다.

#### IV. 맺는 말

국제화, 세계화로 무한 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관의 정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밖에 없으리라 본다. 정보를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도서관은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서관이 문헌정보학 전공의 사서 중심의 인력구성 이었다면 디지털도서관은 여러 전문분야 사서직(과학적 도서관운영 정보관리 전문가), 전산직(정보관리 경험시스템 전문가), 행정직(법률적 식견이 있는 행정가), 주재전공직(서비스대상 학문 전공자)의 공동연구가 바람직하며 관련조직 및 지원조직 등에 대한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긴밀한 협조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서의 경우 디지털 도서관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 등에 관한 기술적,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적 도서관과의 협력적, 긍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할때 우리도 멀지 않은 장래에 컴퓨터 앞에 앉아 도서관 이곳 저곳을 섭렵할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서는 지금까지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문제점 또한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존도서관이 기존장서의 과학적인 관리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자체 데이터베이스 제작」 또는 「상업용 데이터베이스활용」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과제이다.

따라서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 되었을때 우리의 후배들은 보다 쉬운 방법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않고 원하는 정보를 이용하므로써 보다 발전된 미래의 문화생활을 누리리라 생각되며 도서관이 변화를 거듭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보의 보존이라는 고유기능은 유지, 발전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참고문헌

- 기민호. 1993, 「미래도서관 봉사 : 새로운 전자 도서관 서비스를 중심으로」, 도서관문화 282(10) : 311~320.
- 김두식. 1993, 전자출판론1, 서울 : 타래.
- 김성혁. 1995, 「종합문화 정보공간으로서의 전자도서관」, '95 전국 도서관 큰 모임 특별강연 11~20.
- 박준식. 1993, 「미래도서관 자료」, 도서관문화 282(10) : 302~310.
- 이경문. 1993, 「미래의 책, 미래의 도서관」, 도서관문화 282(10) : 297~301.
- 이영권. 1991, 「고도정보사회에서의 미래도서관에 관한 소고」, 도서관문화 269(8) : 249~262.
- 조현양. 1995, 「연구단지 전문도서관의 기술정보활동」, : 160~164.
- 최석두, 오영화. 1995, 「디지털도서관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 학회학술대회 논문집, 제 2회 : 67~70.
- 최원태. 1995, 「전자도서관에 관한 연구」, 도서관문화 Vol 50 No4 : 94~121.
- 한상완, 김성혁, 문성빈, 이란주. 1996, 「국가디지털도서관 구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연구보고서 1~14.